

## 일본 축구팀, 올림픽 상표규정 강화로 삼족오 엠블렘 사용 못해

**일** 본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규정

강화로 유니폼에 국가문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고대 일본 황제 신화에서 유래한 삼족오 엠블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공지했다고 한다.

일본은 남자 및 여자 축구팀 모두 북경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출처 : Radio Australia



◀ [이미지 출처 : crwflags.com]

IOC가 북경올림픽에서는 제조업체 상표 및 국기만을 허락한다며,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 加 Oncolytics Biotech, 레오바이러스 관련 미국 특허 획득

**캐** 나다 기업 온코리틱스 생명공학(Oncolytics Biotech Inc.)이 “세포증식성질환의 치료를 위한 레오바이러스(Reovirus for the Treatment of Cellular Proliferative Disorders)” 라

는 제목의 미국 특허(제7,374,752호)를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동 특허는 다양한 재조합형 레오바이러스로 구성되는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온코리틱스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메리 앤 델라헌티는 “동 특허로 미국에서 레오바이러스 조성물에 대해 추가적인 특허 보호를 받게 되었다” 고 전했다.

출처 : Fox Business



## ITC, “알카텔 루센트, 마이크로소프트 특허침해혐의 없어”

**미** 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 알카텔 루센트(Alcatel-Lucent)를 상대로 제기한 비즈니스 전화 네트워크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미국 무역위원회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화, 메시지 전달, 화상회의 등에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와 전화를 통합한 시스템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본 위원회는 알카텔 루센트가 337조를 침해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337조의 침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의미한다. 본 사건을 최초로 심리했던 ITC의 폴 러컨 행정법 판사는 알카텔 루센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었으나 ITC가 이번에 동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알카텔 루센트의 대변인 메리 워드는 이에 대해 “ITC의 결정에 만족하며 항상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비드 바워마스터 대변인은 “러컨 판사의 판결을 번복한 ITC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향후에 ITC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Reuters

## 美 Biopure, 혈액정화방법과 관련된 유럽특허소송에서 승소

**미** 국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소재한 혈액대체요법 개발업체 바이오퓨어(Biopure Corp.)가 혈액정화방법과 관련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럽특허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보고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생명과학기업 옥

타팔마(Octapharma AG)가 제기한 동소송에서 옥타팔마는 바이오퓨어사의 혈액대체약품인 헤모퓨어(Hemopure)의 생산 중에 발생하는 전염성이 있는 프리온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해 바이오퓨어가 보유하고 있는 유럽 특허를 문

제삼했다고 한다.

소의 혈액을 주원료로 하는 헤모퓨어와 관련된 동 유럽특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출처 : Business Journal

## 美 MLB 선수협회, 상표권 침해혐의로 Steiner Sports 제소

**메** 이저리그 야구선수협회(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가 기념품 판매회사인 슈타이너 스포츠 마케팅(Steiner Sports Marketing Inc)을 상표권 침해 및 위조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 맨하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슈타이너 스포츠는 지난해 허락없이 “12명 이상의 보스턴 레드삭스(Red Socks) 팀 선수들의 사인을 기재

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가 있으며, 최근에는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 내의 홈”을 활동 중인 선수의 약력을 기재한 명찰 및 사진과 함께 액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1987년에 설립된 슈타이너 스포츠는 선수들이 직접 서명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동사는 선수협회측과 2005년 12월 31일까지 메이저 리그 선수들의 사진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

선스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갱신하지 않았다.

선수협회는 법원에 슈타이너가 더이상 MLB 플레이어스 초이스(MLB Players Choice)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과 위조상표를 담고 있는 모든 상품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1백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금 지불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Reuters

## 사노피 아벤티스, 독일 헤라우스 제약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 아벤티스(Sanofi-Aventis)와 드바이오팜(Debiopharm)이 직장암 치료제인 엘록사틴(Eloxatin)에 사용되는 활성 성분과 관련된 특허를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침해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독일의 제약업체 W.C. 헤라우스(W.C. Heraeus)를 제소했다.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의 경우 미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제네

릭 버전이 없기 때문에 2007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23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는 헤라우스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메인 팔마(Mayne Pharma)와 산도스(Sandoz), 에베위 팔마(Ebewe Pharma) 등의 제약업체를 위해 엘록사틴의 활성 성분을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메인 팔마 등은 각각 엘록사틴의 874 특허가 만료되는 2013년 이전에 엘록사틴의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기 위해 약식신약신청서(ANDA)를 FDA에 제출했다.

사노피와 드바이오팜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제네릭 버전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을 영구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출처: FDA News

## Nintendo, 리모콘 특허 침해로 Anascape에 2천1백만 달러 배상해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게임기 전문개발업체인 닌텐도(Nintendo of America)가 동사의 게임기 닌텐도 위(Wii)와 게임 큐브(Game Cube) 전용으로 만든 리

모콘으로 아나스케이프(Anascape Ltd.)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 다며 닌텐도에 2천1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아나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사는 닌텐도 소송의 심리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주에 화해하였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Lufkin Daily News

## 美 Selix 제약, 모비프렙 특허침해로 인도의 Novel 제약 제소

**미**국 셀릭스 제약(Salix Pharmaceuticals Ltd.)이 14일, 유럽의 제약업체 노르진(Norgine, B.V.) 및 노르진 유럽(Norgine Europe B.V.)과 함께 인도의 제약업체 노벨(Novel Laboratories Inc.)을 결장경 검사 전 장을 청

소하는데 사용되는 모비프렙(Moviprep) 특허침해혐의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모비프렙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노르진은 셀릭스사에 미국내 독점판매권을 라이선스했다.

이 소송은 2024년 9월 1일에 미국 특허가 만료되는 모비프렙의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기 위해 노벨사가 미 식품의약청(FDA)에 약식신약신청(ANDA)을 한 직후 제기되었다.

출처: RTT News



## 獨 아우디 자동차, 올해의 유럽 발명가상 수상

**자** 동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아우디가 이제는 각종 상까지 휩쓸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이 혁신적인 신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Audi)를 올해의 발명가로 선정하는 것이다.

올해의 발명가로 선정된 아우디의 기술은 동사가 A8, TT, R8과 람보기니 갈라도(Lamborghini Gallardo)에 사용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alum-

inum space frame)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된 강철 프레임대신 알루미늄을 이용해 차체를 가볍게 하여 연료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였으며, 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충돌 시 보호의 정도도 높였다고 한다.

출처 : Autoblog

## 日 특허청, 지식재산 확보 발 벗고 나서

**일** 본 특허청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발 벗고 나선다.

특허청은 연구초기부터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취득해 국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규모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지식재산 전문인재로 구성된 팀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다능성줄기세포(iPS세

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재 iPS세포 연구를 추진하는 문부과학성의 연구네트워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지식재산부장 등 경험자를 '지식재산프로듀서'로 선임해 변리사들과 4명 가량의 팀을 결성하고 요청을 받은 연구프로젝트에 파견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은 국가의 자금을 토대로 복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휴하고

있는 연구공동체로,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1~2건에 대해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팀은 지식재산 확보에서 연구개발 진행상황, 주변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유효활용, 사업화 등에 대해 조언한다.

일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인재가 부족해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처 : DigitalBosa

## EU 집행위, 2007년도에 세관이 적발한 위조품 통계자료 공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EU 역외 국경에서 세관이 적발한 위조 상품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세관 당국의 위조 상품 적발 사례는 200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조 활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세관 당국과 업계 간의 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증진되어 위조 상품의 구별 및 적발이 쉬워졌다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많은 분야에서 위조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위조된 의약품의 적발수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위조상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서 유럽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6년에 가장 많은 위조 상품의 원천지로 알려진 중국이 이번에도 이 분야에서 1위를 하였다.

출처 : IPR Helpdesk

## EU,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할 웹 서비스 개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China IPR SME Helpdesk”라는 이름의 웹 사이트가 공개되었다.

중국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헬프데스크는 유럽의 중소기업들에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

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중국의 8개 주요 도시에서는 전화나 온라인 요청을 통해 예약하고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다.

출처 : IPR Helpdesk

## ObservatoryNANO, 나노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조사

유럽 10개국에 참가하는 대규모 사업인 나노관측프로젝트(ObservatoryNANO)가 유럽나노관측연구소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나노기술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FP7의 지원을 받아 최근 시작된 나노관측프로젝트는 향후 설립될 유럽 나노기술관측소가 나노 신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정보의 제공처가 될 것이며, 새로 개발되는 나노기술이 유럽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조

사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정책입안자들에게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할 예정이며, 나노기술과 관련된 다른 프로젝트 및 사업들도 검토한다고 한다.

출처 : IPR Helpdesk



## IBM 법률고문이 Peer-to-Patent 패널 의장직 맡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지식재산법협회 춘계 회의에서 IBM의 지식재산법 부법률고문인 매니 쉐터가 '상호검토식 특허처리 프로젝트(Peer-to-Patent project)' 패널의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상호검토식 특허처리 프로젝트는 특허심사의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여 검토하게 함으로써 특허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역사적인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특허심사절차에 참가하게 한 정책은 지난해 6월, 미 특허상표청(USPTO)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미국 뉴욕대 로스쿨 정보법 정책 연구소와 USPTO가 공동 개발한 공동체 특허 검토 시범사업 Peer-to-Patent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정

보 보안을 주제로 한 특허출원 중 발명가의 동의를 얻은 특허기술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여 해당 기술과 관련된 선행기술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당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선행기술의 유무를 조사해야 하는 특허청의 심사관들을 연결시켜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진정으로 신규성이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시작되었다. USPTO는 양질의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고부가가치의 특허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Peer-to-Patent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 발명가가 공개를 허락한 출원 기술에 관한 검토 및 논의
- 선행기술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선행기술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시
- 제시된 선행기술에 관한 논평 및 평가
- 주석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 참조 자료 10건을 USPTO에 전달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검토자나 특허출원조력자로 혹은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 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발명가들은 해당 조건을 갖춘 출원 기술에 관해 공개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USPTO는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공개 검토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출처 : Market Wire

## OHIM 항고심판소, 2007년 결정 총람 편찬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항고심판소(Board of Appeal)가 매년 채택한 결정들 중 중요한 사례들을 골라 발표하는 연례 총람 2007년판을 발표했다.

동 총람에는 공동체상표(CTM) 및

공동체디자인(CD)과 관련된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나 거절의 근거와 같은 다양한 법적 이슈에 따라 나누어 구성했다고 한다.

항고심판소가 채택하는 결정의 수는 2007년에 1,776건에 달하는 등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고심판소는 이에 따라 매년 총람을 작성하여 공동체상표와 공동체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항고심판소 판례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주고자 총람을 발표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IPR Helpdesk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